

새로나온 책



▲예언의 허와 실=사람들은 흔히 사주, 관상 등을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로

인한 폐해만 늘어갈 뿐이다.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예언의 허와 실을 다뤘다. 예언, 사주, 관상, 역학 등을 설명하면서도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운명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단순한 운명론' 보다는 '운명개척론'의 성격이 짙은 책이다. 저자는 현오스님. <대유학당, 9천6백원>



▲그대 그대 자신으로=스님 시인들의 시단을 엮은 시집. 마음을 되찾게 해주는 시집. 저자는 정운스님(충남 보령 세원사). <불광출판부, 4천5백원>

일상에 대한 정직한 관조와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까지 꿰뚫어보며 그대 빛어낸 향기가 청정한 수행자의 면모를 풍겨낸다. 그러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최선을 다해 언어를 다룰 때, 불교와 시가 틀어놓은 하나임을 깨닫게 한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해주는 시집. 저자는 정운스님(충남 보령 세원사). <불광출판부, 4천5백원>



▲파스치로법=20년간 동양의학을 공부한 저자 이종방씨(대한불교대학 학장)가 파스치로법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

파스치로법은 중앙철학의 오행법을 기초로 해서 360경혈을 60경혈로 축소하고, 이 60경혈을 이용해 병을 다스리는 방법. 2~3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자신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방사, 8천5백원>



▲모든 것은 흙 속에 있다=한 농부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는 수필집. 경남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이영문씨가 오랜 세월 주위의 편견과 무관심을 딛고 일궈낸 '태평농법'을 소개하고 있다.

태평농법이란 농약대신 천적을, 화학비료 대신 자운영 같은 천연비료를 이용해 자연과 생태계를 살리는 농법. 그가 바라보는 농업이 '만유공생(萬有共生)'의 세계관과 합일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문, 8천5백원>

원호사상전집 첫째권 '원호, 그의 위대한 생애'

원호연구 새지평 열다 내년 중순까지 7권 완간 국내외 학자 79명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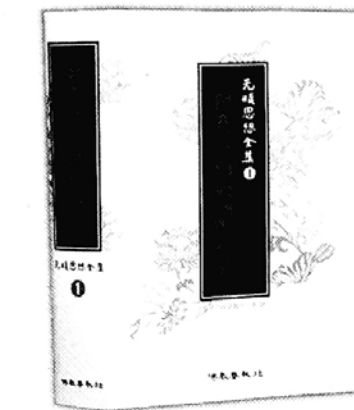
한국 불교의 큰 별. 인도의 용수, 중국의 달마와 함께 세계 정신사에 우뚝 솟은 불우리. 제2의 석가로 불리는 용수보살과 진보보살의 후신으로까지 추앙 받았던 해동불교의 성자.

원호스님(617~686)을 따라 다니는 이들 수식어는 스님의 업적이 우리 문화와 불교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스님은 우주만물의 궁극적 근원에 대한 깨달음을 증생과 함께 나누는데 일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사상을 대승불교 전반에 뿌리 내리게 했다. 지난해말 미국 종교학회가 '원호 분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는 등 1천3백여명이 지난 오늘날에도 원호사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다양한 스님의 사상과 업적, 행적 등을 집대성한 '원호사상전집'이 모두 7권으로 묶여져 나온다. 불교전문학연구원(소장 최석환)은 이번에 펴낸 전집 제1권 <원호, 그의 위대한 생애>(불교출판부 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순까지 7권 모두를 완간할 계획이다. 6천여쪽의 전체 분량과 국내외를 망라한 79명의 학자들이 집필인원으로 동원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집은 기존의 원호학을 망라하고 있다. 이중 신작논문만도 40여 편이 수록되며,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을 과감히 수용해 원호사상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국, 일본 등 원호스님과 관련된 유적지를 모두 답사, 미발굴사료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 한국불교사상과 원호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연 박사(전통문화연구소장)가 감수했다.

부처적 성과도 적지 않다. 불교전문학연구원(소장 최석환)은 이번에 펴낸 전집 제1권 <원호, 그의 위대한 생애>(불교출판부 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순까지 7권 모두를 완간할 계획이다. 6천여쪽의 전체 분량과 국내외를 망라한 79명의 학자들이 집필인원으로 동원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집은 기존의 원호학을 망라하고 있다. 이중 신작논문만도 40여 편이 수록되며,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을 과감히 수용해 원호사상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국, 일본 등 원호스님과 관련된 유적지를 모두 답사, 미발굴사료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 한국불교사상과 원호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연 박사(전통문화연구소장)가 감수했다.

'원호사상전집'은 원호사상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명한 제2권 <원호사상의 현대적 조명>을 비롯해, 원호스님 어록 중 핵심만을 뽑아 정리한 제3권 <원호 어록>, 용수·달마·경허스님 등을 원호스님과 비교 분석한 제4권 <원호와 인물>, 관련 유적을 통해 원호스님의 삶과 자취를 복원한 제5권 <원호



유적답사). 원호스님에 얽힌 각종 설화와 전기 및 관련 자료를 묶은 제6권 <원호 자료 집성>, <금강삼매경론> <관비량> 등 현존하는 원호스님의 저술 필사본에 해제를 붙인 제7권 <원호 저술 자료 집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나온 제1권 <원호, 그의 위대한 생애>에는 신작 논문 4편, 취재기 2편 등 모두 27편의 글이 '자취' '이름에 대한 고찰' '수행과 행법' '오도와 교화' '자연관' '계승문학' '설화 연구' 등 주제에 따라 9장으로 나뉘어 수록돼 있다. 필진은 소암(동북아불교문화연구원장) 석천(불교출판부 편집위원)스님들 비롯해 김지연 박사 이영무(원호연구원장)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최진호(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교수 등과 가마다 시계오(일본 동경대 명예교수) 스기오라 아쓰시(일본 신내천 치과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원호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살펴 현대 수행인들의 왜곡된 삶을 신랄하게 비판한 소암스님의 글과 원호스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동굴임을 새롭게 조명한 석천스님의 글, 원호스님의 식(食)문화를 살핀 최진호교수의 글, 원호스님 저술의 문학성을 논한 지준모 시인의 글 등은 신작논문으로, 원호스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원호사상이 신라를 벗어나 당시의 전세계를 뜻하는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상이었다는 논지를 펼친 일본인 학자 가마다 시계오의 '7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원호의 위치'도 흥미롭다. 책 앞부분에는 일본에서 발견된 <관비량론> 필사본 등 원호스님 관련 자료를 컬러사진에 담아 수록해 놓았다. 1권 값 3만원.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육망버리기' 수행법 안내

법산스님 '위빠싸나 33일'

흔히 복을 준다고 하면 기복신앙을 운운하면서도 내심 반기면서, 탐욕을 버리라고 하면 정법 운운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는 '육망 채우기'와 '육망 버리기' 중 육망 채우기를 원하며 불교를 이해하려 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육망 채우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산스님(대구 여래선원 주지)이 엮은 <위빠싸나 33일>(우리출판사)은 위빠싸나 수행법의 의미와 수행과정을 설명한 안내서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망 버리기'를 배워야 하며, 그 방법이 위빠싸나 수행법임을 말하고 있다.

이중 이 책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챙김'. 위빠싸나의 마음



챙김이란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보고 마음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행하는 행법이다. 그리고 마음챙김은 곧 정견(正見·바른 이해)에 의해 성취된다고 가르친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이 책은 수행자의 개념에서부터 참자유인에 이르기까지의 위빠싸나 수행법을 33일 과정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구어체적 어법을 사용,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편안한 느낌으로 읽힌다. 값 7천5백원.

禪의 안목으로 본

80년대 노동현장

백무산 시집 '깊은 광야의...'

투쟁에서 초월의 길로 들어선 사람 백무산 시인(45). 80년대 치열했던 노동현장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 충격을 주었던 그가 불교의 선(禪) 세계에 전착한 모습을 드러낸 시집 <깊은 광야의 것이다>(창작과 비평사)를 내놓았다.

박노해와 더불어 80년대 노동시의 쌍두마차로 활동했던 그이기에 이번 시집은 그를 기억하는 독자들에게는 충격을 줄 법하다.

'무성하던 앞을 비우고/환하던 꽃을 비우고/마침내 자신의 몸 하나/마저 비워버리고/이것은 씨앗이 아니라/작은 구멍이다' ('풀씨 하나' 중)에서

해탈이란 절대적 경지에 도달하는 '초월'과는 다르다. 선이란 아주 본질적으로 일체를 뛰어넘는다. '텅



비어있는 상태'는 내면적 성찰을 통해 '해탈'에 이르기 위한 그가 택한 방편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오류에 대한 극복이 아닌 초월을 선택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만큼 그가 선을 반성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그의 시구는 여전히 아름답다.

'오늘 아침 얼음물에 빨래를 하는데/ 그 물빛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물빛' 중에서)에 나타난 얼음물과 빨래의 눈부신 이미지는 차라리 깊은 산사에 첨거한 산승의 고졸한 정신적 윤기마저 느끼게 한다. 인간본질에 대해 사유케 하는 시집. 값 5천원.

깨달음 이르는 6단계 수행법 소개

| | |
|------|--|
| 마음닦기 | 무산본각 지음 |
| |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길. 그 길을 따라가며 부처님이 누렸던 참된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방법중 하나는 부처님의 수행법에 의지해 보는 것이다. |

제가자인 무산본각(無山本覺)이 펴낸 <마음닦기>는 부처님이 행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수행법을 기술한 책. 깨달음과 그 완성에 이르는 6단계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헌상으로만 알려져 왔던 사무색정(四無色定·선정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물질적인 속박을 받지 않게 된 경계를 4단계로 나눈 것) 등 선정에 이르는 수행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다. 책 내용의 핵심을 담은 CD를 부록으로 첨부해 수행법을 실생활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세계사, 1만2천원>

화제의 책

중국 4대 소수민족의 역사와 삶

| | |
|-----------|--|
| 황하에서 천산까지 | 김효홍 지음 |
| | 더 이상 읽을 것 없는 빈곤 속에서도 고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초물랑마(일명 에베레스트산)는 불교적 심성을 잃지 않는 티베트인의 정신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

<황하에서 천산까지>는 중국의 4대 소수민족인 티베트족, 회족, 몽골족, 위구르족의 역사와 삶을 그린 현장답사 에세이. 이들 민족은 황하(黃河)에서 텐산(天山)산맥 사이, 중국 영토의 절반 가까이의 영토에서 자치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소수민족. 불교를 영혼의 모태로 삼고 살아가는 티베트인, 한때 초원을 호령했던 몽골인들의 불교와의 인연과 흥망성쇠 등을 그들의 종교적 삶에 맞춰 바라보고 있다. 저자는 김효홍 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 <사계절, 9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산에는 꽃이피네(소) | 법정 | 동쪽나라 |
| 2 | 참선요지 | 대성 | 여시아문 |
| 3 | 불교입문 | 조계종편찬부 | 조계종출판사 |
| 4 | 입산 | 재연 | 문화동네 |
| 5 | 불자의 기본예절 | 일타 | 효림 |
| 6 | 티베트의 지혜 | 소갈린포체 | 민음사 |
| 7 | 겨울부채 | 이현주 | 생활성사 |
| 8 | 한국불교 기도성지 | 정성운외 | 불교시대사 |
| 9 | 카운슬링 불교 | 후재기요시 | 시공사 |
| 10 | 서장 | 대해 | 불광 |

구입문의:(02)737-0695

신창원, 잡힐까? 안잡힐까?

강도살인 및 폭력 신창원
현상금 5,000만원



서울지방경찰청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낱,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법명: 道日) 약력 1968 해인사 법사, 1973 부산 법사, 1974 대덕사 원주, 1975~76 동대문대 불교학과 교수, 1977 동국대 영남권 원주, 1978 대덕사 법사, 1979~86 서울 상나동 자은 보살주지, 부산 청수사/소림사/학림사 주지, 1987 법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활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과를 뺄 수 있습니다.

▶ 6가지 과 짚는 법 · 살로 과 짚는 법 · 책이자로 과 짚는 법 · 바둑돌로 과 짚는 법 · 동전으로 과 짚는 법 · 생활속의 숫자(이디트)수, 주민등록번호, 차표 등)로 과 짚는 법 · 일진, 년, 월, 시로 과 짚는 법 · 14가지 항목별 과 짚는 법 · 부자부녀 27개항 90일을 노래, 의, 시를 부수어 준다 · 시집/책은 다시 재탄생하며 마음 일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살과, 살과, 기쁨을 연구하고 7일동안 정신수련이 꼭 필요한 시집이다. · 부동산책 · 타인, 중개인 말만 듣고 함부로 계약하지 말라 · 3개월만 읽으면 좋은 기억이 이루어진다. · 새집 · 새사람은 6개월 뒤에 시작하는게 좋다 · 스기오라 아쓰시(일본 신내천 치과대 교수)를 소개한다. 자신감을 가져라.

신창원 신창원 30분만 따라하기 12,000원

10,000명의 실천성찰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침쟁이 뺄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